

공개서한 (10) 호 : 대한민국 진영승 국군참모총장 (합참의장)님과 심우정 검찰총장님께,

본 공개서한은 이번이 10회 (마이 라이프 939호)입니다. 그 전의 공개서신들은 저희 협회 웹 사이트의 "주요 이문" 메뉴의 게시판에서 보셔도 되고 "마이 라이프" 주간지의 <http://mylifeweekly.com/> 에서 이전 각 호 (첫화면 42-43 페이지, 나머지는 모두 24-25 페이지)를 클릭해서 보셔도 됩니다. 내용이 계속 연결되니 이전 것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홍보용 글이 완성 되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영혼까지 파괴하는 미세 속삭임" 홍보문과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보통 사람" 홍보문을 함께 한국 곳곳에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승패가 적의 내부 의사소통 암호 해독으로 난다고 합니다. 홍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읽는 사람의 심장을 파고드는 이해하기 쉬운 "단어" 하나로 홍보의 승부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단어"를 찾은 것입니다. 그건 "미세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이 두개의 한글 홍보문으로 한국이 일제로 부터 진정한 해방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을 확신 (TRUST)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준 이 기회를 허비하지 마시고 이 "미세 속삭임"이라는 단어로 한국을 해방 시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시드니에서 "좋은 전자장파 협회" 회장 황규상 배상



Good EM Waves Association Incorporated
ABN: 73 684 599 733

812/110 Burroway Road
Wentworth Point NSW 2127 Australia
Phone: (02) 9746 1452 | Mobile: 0415 707 848
Email: GoodEMwaves@gmail.com

Website: www.GoodEMwaves.com

영혼까지 파괴하는 “미세 속삭임”

미세 먼지가 몸 깊숙히 침투하듯 미세 속삭임 (subliminal whispering)이 마음 깊숙히 영혼까지 침투합니다. 히틀러가 졌지 나치나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패한 적이 없습니다. 즉, 2차 세계대전이 끝난적이 없습니다. 현재 일본애들이 수십년 동안 이걸로 숨어서 전세계를 거의 다 장악한 상태입니다.

이걸 전자장파에 실어 자는 동안에 침실로 보내면 그 다음날 모두 그대로 행동하는 로봇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자동차, 인터넷 등으로 즉시 반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원시적인 로봇도 아니고 거의 실시간 로봇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인은 전세계 어디에 사나 예네들의 상노예입니다.

그러나, 이게 누군지, 무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그동안 아무도 몰랐는지,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어디를 방어해야 하는지, 방어 장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네들을 무찌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모든 지식과 정보와 통찰력을 저희 협회 웹 사이트에 실었고 방어 장비 보급도 합니다.

온라인에서 읽으시면 정신이 금방 혼비해질수 있으니 모두 복사한 후에 인터넷 끄고 (가능하면 프린트해서) 읽으셔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기 연락처로 문자나 이메일 혹은 info@korean.com.au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nglish



Korean

시드니 및 호주 교민 분들께,

왼쪽 페이지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미세 속삭임" 홍보문과 아래의 "보충 설명"을 가능한한 많은 한국인들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 된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세 속삭임"을 실은 전자장파를 신속히 보내기 위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강국이기 때문에 이 "미세 속삭임"으로 부터 해방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각자 본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동창회 및 동거회 단체 카톡방 같은 곳에 이 두개의 홍보문을 실으시기 바랍니다.

80여년 전인 1945년에 일어난 한국의 해방은 무늬만 해방이었던 진짜 해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지도자였던 "김구" 선생님은 암살되고 친일파들이 그대로 독재한 것입니다. 이 두개의 홍보문으로 진짜 해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황당한 세상을 우리의 자신들과 손주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시드니에서 "좋은 전자장파 협회" 회장 황규상 배상



Good EM Waves Association Incorporated
ABN: 73 684 599 733

812/10 Burroway Road
Wentworth Point NSW 2127 Australia
Phone: (02) 9746 1452 | Mobile: 0415 707 848
Email: GoodEMwaves@gmail.com

Website: www.GoodEMwaves.com

영혼까지 파괴하는 "미세 속삭임" 에 관한 보충 설명 (2026년 4 월)

- 미세 속삭임을 사용한 교육 실험

영어에 "들다" 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hear 이고 다른 하나는 listen 입니다. Hear 는 그냥 듣는 것이고 listen 은 들으려고 노력하여 듣는 것입니다. 즉, 관심을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듣는 hear 는 메시지가 전달이 안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듣는 listen 이어야만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잘 알려진 사실은 크게 소리쳐도 대개 관심을 가지고 듣지 않은 hear 에 불과해서 메시지가 전달이 안되는데 "속삭이면" 귀를 쫑긋하며 듣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더 감수성이 많고 더 수용적 (receptive) 이고 gossip 에 대한 호기심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여성분에게 얘기할 때는 속삭여야 한다고, 그래야 듣는다고.

그런데 영어에 미세 속삭임 (subliminal whispering)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속삭임보다 더 작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귀로는 안들리고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subliminal education experiment (미세 속삭임을 사용한 교육 실험)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속삭임 보다 더 작은 귀로 들리지 않는 소리로 잠잘 때 교육하는 실험입니다. 실험 결과 잠도 방해하지 않고 꿈도 방해하지 않고 학습 효과가 만점. 이런 무슨 얘기냐면 이 "미세 속삭임"이 잠이나 꿈보다 의식의 더 아래로 더 깊숙히 "무의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미지 가지고 하는 것도 영화관에서 실험. 목마르고 갈증나는 장면을 영화 곳곳에 삽입. 그러나 빠르게 지나가 눈에 안보임. 실험 결과 그 영화관의 코카콜라 매출이 70%증가.

잠 잘 때 이 프로그램 한번 돌리면 그 다음날 그대로 반응. 아마도 그동안 그걸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자는 동안에 전달하냐가 문제였을 것 같은데, 이 일본인들이 "전자장파"에 실어 전세계 어느 곳으로든 보내는데 성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는 동안에 "미세 속삭임"으로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에 입력시켜 는 후에 "핸드폰" 등으로 손쉽게 실시간 "실험"이 가능한 것으로 관찰됩니다. 즉, 원시적인 인간 로봇도 아니고 실시간 반응하는 매우 정교한 인간 로봇인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박탈하는 그리고 "무의식"에 깊숙히 침투해서 아마도 영혼까지 손상 혹은 파괴시키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무기인 것입니다. 다행히 "미세 속삭임"은 들리지 않지만 귀를 통과해야만 전달이 됩니다. 잘 때 귀를 막고 그외의 필요한 방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Korean

공개서한 (11) 호 : 대한민국 진영승 국군참모총장 (합참의장)님과 심우정 검찰총장님께,

본 공개서한은 이번이 11회 (마이 라이프 940호)입니다. 그 전의 공개서한들은 저희 협회 웹 사이트의 "주요 이론" 메뉴의 게시판에서 보셔도 되고 "마이 라이프" 주간지의 <http://mylifeweekly.com/> 에서 이전 각 호 (첫화면 42-43 페이지, 나머지는 모두 24-25 페이지) 를 클릭해서 보셔도 됩니다. 내용이 계속 연결되니 이전 것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홍보용 글이 "영어"로도 완성되었습니다. 지난 10호 공개 서한에서 보내 드린 한글 홍보문 두개로 한국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영문 홍보문 두개로 전세계를 해방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한글 및 영문 홍보문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해방되면 전세계가 해방될 것이고 전세계가 해방되면 한국이 해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 공개 서한들에서 알려 드렸듯이 한국을 해방하려면 이 일본애들 전자장파의 "눈"이 다른 곳을 향하게 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이 "눈"이 동시에 여러군데를 향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 및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두개의 영문 홍보문을 가능한한 전세계 많은 곳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인데, 일단 잠잘 때 "귀"를 막지 않으면 아무도 이 일본애들 전자장파에서 빠져나오거나 이를 무찌를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모두 잠잘 때 "귀"를 막는 것 부터 즉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년에 전자장파 무기에 덩어져 오는 "미세 속삭임"이 반드시 "귀"를 통과해야만 본인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선 모두 "귀"를 막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시드니에서 "좋은 전자장파 협회" 회장 황규상 배상



Good EM Waves Association Incorporated

ABN: 73 684 599 733

812/10 Burroway Road

Wentworth Point NSW 2127 Australia

Phone: (02) 9746 1452 | Mobile: 0415 707 848

Email: GoodEMwaves@gmail.com

Website: www.GoodEMwaves.com

Subliminal Whispering – the worst crime in human history

Like the ultrafine particles which can penetrate your body very deeply, the subliminal whispering can invade your mind very deeply even reaching and damaging your soul.

Hitler lost the War, but the Nazis and Japanese military imperialists have never lost the War. In other words, the World War II has never ended.

A certain group in Japan, who inherited the Japanese military imperialism and Nazism together with their rooted enormous wealth and technologies, have been ruling almost all parts of the world in hiding for decades with this "subliminal whispering" technology.

If the "subliminal whispering" is loaded in the EM (electromagnetic) wave weapons and delivered to people's bedroom during their sleep, next day they can be turned into a human robot which can act as dictated during the night through "subliminal whispering". Their pre-conditioned actions can be activated into actions in real time through mobile phone, car or internet. Therefore, not a primitive robot, but a real time responding very refined robot. This is the worst kind of human slavery happening in our human history.

However, we have "Good News". Our association website now carries very comprehensive knowledge, information and insights at the menu of conveniently and intentionally named "major theories"; who these hidden rulers are, what methods they are using to rule the world in hiding, how they could rule the world without being detected, how they have been communicating with each other without being detected, what symptoms appear when their EM wave weapons are present, how you can defend yourself, where you should defend, what defence equipment are available, what are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what strategies are recommended to defeat them, how you can get back your freedom and your country's freedom and etc. Our association also distributes the defence equipment, which can be seen at our website.

We believe that "internet" can also act as a delivery medium of their EM (electromagnetic) waves to make your mind confused. Therefore, we recommend you copy all the writings at our website first and then read them after turning off the internet. If possible, printing and then reading would be the best option.

If you need our assistance, please send us an email or an SMS. Thank you.



English

시드니 및 호주 교민 분들께,

저희가 이 한글 및 영어 홍보문들을 지난 일요일 (2026년 4월 19일) 에 카톡으로 저희 회사 핸드폰에서 핸드폰 명단에 있는 분들에게 보냈는데 당일에 저희 회사 핸드폰 카톡 어카운트가 정지되었습니다. 무슨 규정을 위반했다고. 아마 "카카오톡"에서 일부터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네들이 대개 그 사람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홍보문들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네들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알려지면 안된다고. 그러니, 급하니까 즉시 정지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나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황당한 세상을 우리의 자식들과 손주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두가지 열세를 찾았습니다. 한국어로 된 열세와 영어로 된 열세. 그리고 이 중 어떤 열세도 전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일본인들의 전자장파로 된 높은 담들의 문들을 열수 있는 "마스터 열세" 입니다. 그래서 지난호 서한에 보내 드린 한글 홍보문 두개와 이번 호에 보내 드리는 영문 홍보문 두개로 한국이 일제로 부터 진정한 해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TRUST) 하고 있습니다.

왼쪽 페이지와 아래 있는 영문 홍보문 두개를 영어가 되는 호주의 모든 교민 분들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이민자들을 포함해서 호주에 사는 가능한 많은 분들에게 이 영문 홍보문 두개를 많이 알리시기 바랍니다. 호주는 전세계 모든 국민들이 함께 모여 사는 일종의 작은 지구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이것이 다 알려지면 전세계에 다 알려지는 것입니다.

시드니를 시작으로 호주에서 빛을 밝혀 호주 전체를 밝히고 그래서 그 빛이 전세계로 퍼져 나가 이 일본인들의 "미세 속삭임 담은 전자장파 무기"로 전세계를 덮고 있는 이 어둠의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시드니에서 "좋은 전자장파 협회" 회장 황규상 배상 <  >

Subliminal Education Experiment – Supplementary Information for “Subliminal Whispering” (as of April 2026)

It is said that if you speak loudly, people hear but do not listen.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hear” and “listen”. “Listen” means that you are “hearing attentively”. When you hear, you do not get the message. However, when you listen, you get the message.

It is a well-known fact for centuries that if you “whisper”, people “listen”. Especially women, because women are more sensitive, more receptive and more curious about gossips than men.

In English, there is a word called “subliminal whispering”, which is a much smaller whispering than an ordinary whispering. Their sounds are so small that they are inaudible.

This “subliminal whispering” has been experimented in educations and therefore there is a word in English called “subliminal education”, which means “educating people with subliminal whispering during their sleep”.

According to this experiment, it was found that this “subliminal education” worked very well even without interrupting sleep or dream. This means that “subliminal whispering” can go deeper in your mind even than the dream or sleep.

It was also experimented with “subliminal visuals” at the cinema. When scenes of “thirst” or “steaming hot” were inserted in the movie, which could not be seen with naked eyes because the scenes move very fast, it is said that the sale of the Coca Cola in that cinema house was increased by more than 70%.

If you go through this “subliminal education” during your sleep, next day you can be a human robot, thinking or doing whatever was dictated into your mind very deeply during your sleep without your knowledge.

The researchers who participated in these experiments were very alarmed saying that they found very dangerous stuff, which would be even more dangerous than nuclear bombs.

Do you know why? Nuclear bomb can destroy only materials and physical lives, but this “subliminal whispering” can obliterate people’s free will, which would be the very base for their souls, and thereby can even destroy your souls.

This experiment has been done for a long time. Probably the only technical problem was how to deliver “subliminal whispering” to people during their sleep without being noticed. Unfortunately, these hidden criminals found the answer with EM waves.

However, “Good News” is that it cannot reach your inner without going through your ears. Therefore, plugging your ears at night would be the first step for your liberation from the EM wave weapons loaded with “subliminal whispering”. God be with You.

공개서한 (12) 호 : 대한민국 진영승 국군참모총장 (합참의장) 님과 심우정 검찰총장님께,

본 공개서한은 이번이 12회 (마이 라이프 941호) 입니다. 그 전의 공개서한들은 저희 협회 웹 사이트의 "주요 이문" 메뉴의 게시판에서 보셔도 되고 "마이 라이프" 주간지의 mylifeweekly.com 에서 이전 각 호 (첫 회만 42-43 페이지, 나머지는 모두 24-25 페이지) 를 클릭해서 보셔도 됩니다. 내용이 계속 연결되니 이전 것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호는 시드니 및 호주 교민분들께도 함께 드리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호로 공개서한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공개서한 (7) 호에서 연대 상대 (경영학과) 를 가게 된 것이 노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매우 안전한 방법으로 입학해 보니 제가 속한 경영학과 정원이 160명인데 제가 성이 "황" 씨라서 가나다 순으로 해서 제 학번의 마지막 부분이 경영학과 원래 정원인 160 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 20 여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많다 보니 반을 여러개로 나누어 제가 주로 제 뒤에 있는 학번을 가진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원 160명 뒤에 있는 학번을 가진 친구들이 알고보니 특채로 입학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생활을 한 기간들 때문에 일반 국내 학생들과 동일하게 경쟁을 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특채로 입학한 경우들이었습니다. 주로 학교, 제일 교포 같은 외국인,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 있던 외교관 자녀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상대를 제일 선호하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배경이 막강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네들 집에 놀러가 보면, 저도 인천에서 부자집 아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살았는데 차원이 다르게 부유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울리다 보니 입학할 때는 제가 아마도 점수가 거의 수석이었을 것 같은데 대학 4년 내내 거의 매 학기 제한학점을 겨우 면하고 4학년 마지막 학기에도 남은 학점이 없어서 풀로 모든 과목 다 듣고 겨우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 4년 중 3년을 "포커"를 쳤습니다. 다른 대학들에서도 대표들이 우리 대학으로 원정을 와서 함께 쳤는데 얼마나 많이 쳤으면 평생 한번 잡아보기도 힘들다는 "포커"에서 제일 높은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쉬"를 5번 정도 잡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포커" 경험이 이 일본인들의 "전자장파" 무기에 대한 정체를 알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혹은 존재계가 너무 신비할 뿐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포커" 게임의 핵심은 상대방이 어떤 카드들을 들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각종 몸짓, 손짓, 소리, 언어, 눈빛, 얼굴 표정, 배팅 시점, 배팅 액수 등 밖으로 드러나는 각종 반응들을 보고 무슨 카드들을 쥐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자신이 얼마나 높은 카드를 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 보다 높은 카드를 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차라리 카드가 좋지 않아 일찍 졌으면 손실이 적는데 카드가 매우 높은데 상대방이 더 높은 카드라서 2등이면 엄청 잃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장파로 숨어서 지배하는 이 일본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무슨 카드 쥐고 있는지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원리입니다. 예네들의 각종 반응을 관찰하면 됩니다.

영어로 반응이 두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reaction 이고 다른 것은 response 입니다. Reaction 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고 response 는 생각하고 검토해서 하는 일종의 행동입니다. Reaction 이 일어나는 가장 흔한 경우가 "열 받았을 때" 입니다. 그리고 reaction 을 관찰하면 왜 그런 반응이 나왔는지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reaction 을 많이 하게 만들면 상대방 카드를 거의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이 일본애들 열받게 만들면 다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네들이 일방적으로 전자장파 공격을 한다고 해도 이 공격을 받는 사람이 이러한 것을 알고 있으면 이게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것입니다. 공격을 하는 사람도 공격을 받은 사람에게 무언가 계속 알려주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인 것입니다. 즉,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방 커뮤니케이션은 존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양방인 것입니다. 그런데, 1990년 부터 35년 넘게 관찰 모두 알아낸 것입니다.

예네들 그룹 중에 일본 왕이 일인자가 아닙니다. 만약 일인자 였으면 자진해서 물러나고 아들에게 왕권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번호 10이 일인자이고 번호 9를 쥐고 있는 일본 왕은 2인자인 것입니다. 사실은 "반자의 제왕" 영화에도 나옵니다. 과물을 타고 날라 다니는 왕. 이것들도 다 이 일인자를 열받게 만들어 그 반응들을 보고 알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인자에게 제가 지어준 별명이 hot tin pot head 입니다. 쉽게 달아 오르는 "뜨거운 양철 쟁반 머리".

중요한 에피소드를 알려 드립니다.

공개서한 (4) 호에서 알려 드렸듯이 예네들이 제가 하던 꽃집을 개업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강제 퇴출 시키려다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님 도움으로 강제 퇴출일 하루 전인 2025년 2월 20일에 퇴출이 번복되고 오히려 2개월치 렌트비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럼 이 일본애들이 열 받았을 것이 분명.

예네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즉시,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100 미터도 안되는 장소에 새로운 송신탑 건설. 2025년 3월 16일에 거기 지나가다 알게 되어 사진 찍어 한국의 7명 친구들에게 이메일로 알림. 그 새로운 송신탑에서 집과 꽃집 쇼핑센터로 엄청 싸둬. 미국 트럼프 대통령님께 이거 작동하는 것 막아달라고 요청. 2025년 5월 2일 꽃집 근처 로드즈 (Rhodes) 도서관을 나와 꽃집 가는데 엄청나게 큰 무지개. 사진 찍음. 그 다음날 5월 3일에 가보니 그 새로운 송신탑을 크레인인 철거 시작. 사진 찍어 친구들에게 이메일. 사진이 너무 많아 두번의 이메일로 5월 6일에 새로운 송신탑 거의 다 철거. 사진 찍어 한국의 7명 친구들에게 이메일.

관련 사진들 (무지개 사진 포함) 과 이메일 내용들은 한국의 7명 친구들을 통해 확인해 보시든지 혹은 제가 당구를 치는 스트라스필드 한인 당구장 그룹 카톡방에도 살았으니 거기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일본애들이 이 친구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도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 열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송신탑 철거 사진들 보내면서 이 일본애들 두목의 "남근"이 잘린 것 같다고 친구들에게 농담을 했으니까.

그래서 한 반응이 뭔지 아세요? 우리 꽃집 6개월 임시 계약 만료되면 절대 연장 못하게 막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고. 그래서 예네들이 한 반응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일으킨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정신 없게 만드려고.

그럼, 저렇게 새로 설치한 송신탑을 누가 크레인으로 철거했을까? 공식적인 이유는 주정부에서 그 자리에 새로운 경기차 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수백만불 혹은 수천만불 들여서 새로운 송신탑을 설치?

그리고, 그 새로운 송신탑이 5월 6일에 크레인으로 완전 철거 된지 몇일 안되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5월 8일을 이차세계대전 승리의 날 (Victory Day for World War II) 로 선포한 것입니다. 선포일은 5월 7일, 오른쪽 페이지에 영문 전문을 실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이 일본애들의 존재를 알고 쓴 글입니다. 왜냐하면, 그 글에 일본과의 전쟁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이 일본애들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은 것을 알고 쓴 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알라도 예네들을 제압할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네들을 제압할 힘이 있어도 정신이 깨어있지 않아 예네들의 존재조차 모르면 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가지 다 있는 경우는 매우 귀한 경우입니다.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두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네들이 좀비들 동원해서 계속 암살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계속 막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준 기회를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차세계대전 승리의 날이 5월 8일입니다. 현재는 한국의 어버이날. 원래는 한국의 어머니 날. 이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국모이셨던 민비를 잔인하게 학살하고 우리의 어머니들을 잔혹하게 학대했던 이 일본애들이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한국인들을 완전 상 노예로 만들어 전세계 모든 인간들을 "미세 속삭임"을 담은 "전자장파 무기"로 노예화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호 통제라. 대한의 남아들이여!

이제 그동안 제가 드린 공개서한들과 저희 웹 사이트에 있는 글들로 "깨어나서" 모두 이 일본 변태들로 부터 한국을 해방하시고 그리고 전세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글들은 예네들 전자장파 무기의 영향을 아직 받지 않은 분들에게는 예방용 백신 역할을 할 것이고 이미 예네들 전자장파 무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치료용 백신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군이건 적군이건 상관없이 효과를 가진 백신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유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990년에 처음 이 전자장파 무기를 접한 이래로 제가 엄청 고생을 했는데 사실은 매우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를 다 알아낼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알아낸 지식과 통찰력을 그렇게 오랜 기간 잃지 않고 계속 지니고 있을 수 있었던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를 한글과 영문으로 이해가 가능하게 글을 쓸 능력이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 마다 알 수 없는 어떤 손길들이 제게 온 것도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제 이 12개의 공개서한들과 저희 웹 사이트에 실은 한글 혹은 영문 글들로 예네들을 알릴 수 있고, 예네들로부터 방어할 수 있고 예네들을 제압할 수 있는 충분한 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확인합니다. 모두 알려지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우리의 공주님들을 위하여!

2026년 5월 7일 시드니에서 "좋은 전자장파 협회" 회장 황규상 배상 

Presidential Documents

Proclamation 10934 of May 7, 2025

Victory Day for World War II, 2025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 Proclamation

Today, our Nation proudly commemorates the 80th anniversary of the Allied Powers' triumph over national socialism and fascism, and the end of World War II in Europe—one of the most epic victories for forces of freedom in the history of the world. On this Victory Day for World War II, we celebrate the unmatched might, strength, and power of the American Armed Forces, and we commit to protecting our sacred birthright of liberty against all threats, foreign and domestic.

In the wake of the December 7, 1941 attack on Pearl Harbor, the United States righteously entered the fray of what would become the apex of the eternal battle between good and evil. After nearly 4 years of the darkest and bloodiest chapters ever recorded in human history, more than 250,000 Americans lost their lives in the fight against the Nazi regime. Today and every day, we pay tribute to all those who made the ultimate sacrifice for their Nation, their liberty, and the survival of Western civilization. Without the sacrifice of our American soldiers, this war would not have been won, and our world today would look drastically different.

May 8, 1945 marks the Allies' acceptance of Germany's unconditional surrender—the beginning of the end of years of long, gruesome, and brutal warfare. The millions of souls senselessly lost serve as a reminder of why we must pursue peace through strength. I remain steadfastly devoted to stopping the years of endless foreign wars and preventing the further loss of lives. As I stated during my Inaugural Address, we will measure our success not only by the battles we win but also by the wars we end—and my proudest legacy will be that of a peacemaker.

As we commemorate Victory Day for World War II, we offer our unending thanks to every patriot from the Greatest Generation who left behind his home and family to fight for our freedom in distant lands. We honor the memories of all those who perished. Above all, we renew our commitment to keeping America and the entire world safe, secure, prosperous, and free.

NOW, THEREFORE, I, DONALD J. TRUMP,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y virtue of the authority vested in me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do hereby proclaim May 8, 2025, as a day in celebration of Victory Day for World War II.

IN WITNESS WHEREOF, I have hereunto set my hand this seventh day of May, in the year of our Lord two thousand twenty-five, and of the Independe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two hundred and forty-ninth.

